

Morning Brief

2021. 08. 30

* 본 자료는 금일 공표된 리포트의 통합본입니다.

Today's Comment

[산업]

철강/비철 Weekly : 전방산업 수요 성수기 진입하며 가격 강세 전망 -----김미송

[전략]

국내외 경제이슈 : 미 증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도 조기 금리인상 일축에 동반 강세 -----채현기

CAPE Weekly : 금리인상, 아직 멀었다 -----투자전략팀

주요국 증시				환율 · 금리 · 상품			
	종가	전일비	%		종가	전일비	%
미국지수				환율			
DOW	35,455.80	242.68	0.69	원/달러	1,169.08	-1.10	-0.09
NASDAQ	15,129.50	183.69	1.23	엔/달러	109.84	-0.25	-0.23
S&P 500	4,509.37	39.37	0.88	원/엔	10.58	-0.05	-0.51
Phil 반도체	3,436.45	66.06	1.96	원/유로	1,375.24	-0.52	-0.04
유럽지수				금리			
영국 (FTSE)	7,148.01	23.03	0.32	CD(91일)	0.92	0.00	0.00
프랑스 (CAC)	6,681.92	15.89	0.24	국고채 3년	1.41	0.01	0.72
독일 (DAX)	15,851.75	58.13	0.37	미국채 2년	0.22	-0.03	-10.60
아시아지수				미국채 10년	1.31	-0.04	-3.12
한국 (KOSPI)	3,133.90	5.37	0.17	상품			
한국 (KOSDAQ)	1,023.51	3.07	0.30	금(NYMEX)	1,816.60	24.40	1.36
일본 (NIKKEI)	27,641.14	-101.15	-0.36	구리(LME)	9,410.00	110.50	1.19
대만 (가권)	17,209.93	142.97	0.84	철강(중국내수)	5,649.00	-49.00	-0.86
홍콩 (항셍)	25,407.89	-7.80	-0.03	BDI	4,235.00	40.00	0.95
중국 (상해종합)	3,522.16	20.49	0.59				
인도 (SENSEX)	56,124.72	175.62	0.31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철강/비철 Weekly] 전방산업 수요 성수기 진입하며 가격 강세 전망

Analyst 김미송 6923-7336, misongkim@capefn.com
RA 이규익 6923-7359, kyuikk@capefn.com



총평

- ▶ 지난주 중국 철강제품 가격 열연 +0.3%WoW, 냉연 +0.4%, 후판 +0.1%, 철근 +0.4%. 모든 철강 제품 가격 상승.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주중 2% 가까이 상승했으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거래량 급감하며 주간 단위 상승폭은 제한되었음.
9-10월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완벽히 회복하지 못한 영향.
- ▶ 철광석 152달러 +8.2%, 선물 160달러 +3.4%. 가격 상승.
최근 5주간 40% 가까이 하락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확대되자 철강사들이 철강 생산을 늘려 철광석 수요가 증가했음.
실제 8월 중순 중국 조강생산량은 상순 대비 4.6% 증가.
- ▶ 원료탄 214달러 +2.6%. 가격 상승.
중국과 몽골 국경에 위치한 Ganqimaodu에서 지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영향으로 검문소 폐쇄가 23일부터 2주간 연장됨.
원료탄 가격 강세로 최근 한달간 총 7차례 840위안의 코크스 가격 인상이 단행되며 중국내 코크스 가격은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 기록.
- ▶ 주요 뉴스, 24일 중국인민은행은 신용 공급을 확대하고 실물 경제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을 늘린다고 발표. 7월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대책.
이에 대한 조치로 지난주에만 1,2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기준을 인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일본 최대 철강기업 신일본제철이 도요타철강 납품 가격을 2만엔 인상.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신일본제철은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인상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임. 국내 철강사도 자동차용 가격 협상 남겨둔 상황에서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국내의 가격 변동 내역. 사강강철이 8월 하순 철근, 선재 그리고 bar-in-coil 가격을 150위안 인하. 현대제철은 9월 H형강 가격 3만원 인상.
- ▶ 금속 가격 아연 2,991달러 +2.3%, 연 2,460달러 -0.3%, 구리 9,352달러 +4.8%, 니켈 18,914달러 +1.9%, 코발트 50,112달러 -2.1%.
금 1,818달러/oz +2%, 은 24달러/oz +4.3%. 품목별로 다른 흐름을 보임.
지난주에만 JX Nippon Mining, Andida, Corro Colorado 그리고 Salvador 광산에서 임금 협상 문제가 발생하며 구리 가격 상승폭 컸음.
이미 임금 협상을 완료한 Escondida광산의 계약 내용이 다른 광산들의 임금 협상을 어렵게하고 있음.
중국이 3번째 비축 광물 방출을 결정함. 경매 날짜는 9월 1일이며 구리 3만톤, 알루미늄 7만톤 그리고 아연 5만톤이 대상.
- ▶ 이번주 중국 철강가격 강세 전망. 철광석 가격이 반등했으며 전방산업 수요 성수기에 진입하여 수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철강 가격 업데이트

단위(가격, %WoW)

- ▶ 열 연: 중국내수: 5,649 위안/톤(+0.3%), 중국수출오퍼: 956 달러/톤(+0.5%), 한국내수: 1,320 천원/톤(0%), 한국수입: 1,290 천원/톤(0%)
- ▶ 냉 연: 중국내수: 6,471 위안/톤(+0.4%), 중국수출오퍼: 1,062 달러/톤(+1%), 한국내수: 1,310 천원/톤(0%), 한국수입: 1,300 천원/톤(0%)
- ▶ 후 판: 중국내수: 5,620 위안/톤(+0.1%), 중국수출오퍼: 942 달러/톤(+0.5%), 한국내수: 1,200 천원/톤(0%), 한국수입: 1,200 천원/톤(0%)
- ▶ 철 근: 중국내수: 5,200 위안/톤(+0.4%), 중국수출오퍼: 905 달러/톤(+1.2%), 한국내수: 1,160 천원/톤(-4.1%), 한국수입: 1,160 천원/톤(-4.9%)
- ▶ H형강: 한국내수: 1,270 천원/톤(0%), 한국수입: 1,200 천원/톤(0%) ▶ ST열연: 한국내수: 3,400 천원/톤(0%), 수입: 3,300 천원/톤(0%)
- ▶ 철광석: 호주Spot: 152 달러/톤(+8.2%), SGX선물: 160 달러/톤(+3.4%) ▶ 강점탄: 호주Spot: 214 달러/톤(+2.6%)
- ▶ 재 고: 열연: 322 만톤(-2.5%), 냉연: 162 만톤(-1%), 철근: 713 만톤(+0%), 철광석: 11,547 만톤(0%)

비철금속 가격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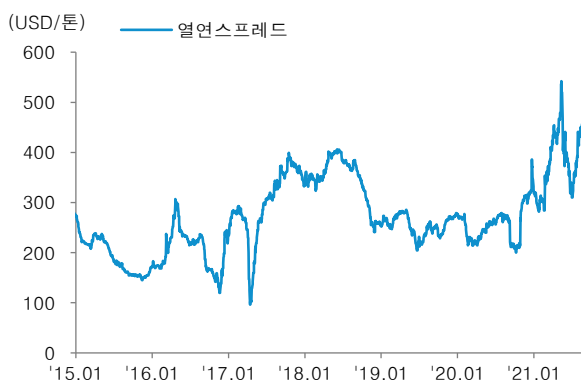
단위(가격, %WoW)

- ▶ 아연: LME가격: 2,991 달러/톤(+2.3%), 재고: 238 천톤(+2.4%) ▶ 연: LME가격: 2,460 달러/톤(-0.3%), 재고: 55 천톤(-2.8%)
- ▶ 구리: LME가격: 9,352 달러/톤(+4.8%), 재고: 254 천톤(+1.1%) ▶ 니켈: LME가격: 18,914 달러/톤(+1.9%), 재고: 195 천톤(-1.4%)
- ▶ 코발트: LME가격: 50,112 달러/톤(-2.1%), 재고: 286 톤(0%)
- ▶ 금: LME가격: 1,818 USD/oz(+2%) ▶ 은: LME가격: 24 USD/oz(+4.3%)
- ▶ 환율: 원/달러: 1,169 (-0.9%), 위안/달러: 6.47 (-0.5%), 헤알/달러: 5.2 (-3.3%)

주요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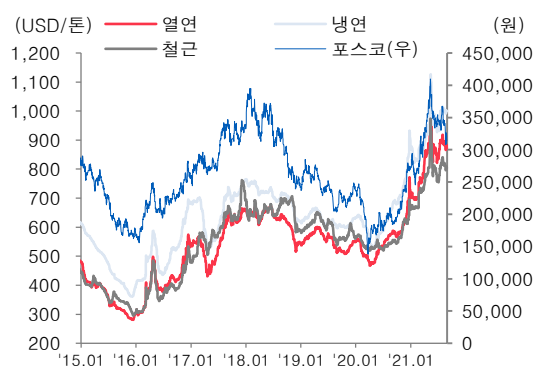
- WEEKLY: China mills' steel stocks retreat, demand improve (Mysteel 8/27)
- WEEKLY: China's BF capacity use stable at 85.3% (Mysteel 8/27)
- WEEKLY: China iron ore port stocks reach a 3-month high (Mysteel 8/27)
- Nippon Steel, Toyota agree \$182/t steel price hike (Mysteel 8/27)
- INFOGRAPH: China met coke price touches 15-year high (Mysteel 8/25)

열연 스프레드(=열연가격-1.6*철광석-0.7*원료탄-0.064*철스크랩)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중국 열연, 냉연, 철근 내수 가격 및 포스코 주가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철강 뉴스

21년 08월 27일 (출처: 스틸데일리)	H형강 고시價 시장관철 여부 '눈길' -현대제철이 9월 H형강 가격을 3만원 인상하며 4월부터 이어져온 인상 기조를 이어감. 다만 유통가격과의 차이가 7만원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관철이 다소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가격 인상과 가수요의 영향으로 하반기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보수 영향으로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어느 쪽이 더 클 것인가에 따라 가격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21년 08월 27일 (출처: Mysteel)	WEEKLY: China mills' steel stocks retreat, demand improve -중국 184개 제철소 5대 철강재 재고는 전주에 비해 2.6% 감소함. 철강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재고 비축 수요의 영향으로 수요가 일부 회복했기 때문. 건축용 철강재 일 평균 거래량은 202,315톤으로 전주 대비 26.6% 증가함. -9~10월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완벽히 회복하진 못하여 철강 가격 상승폭은 제한되었음.
21년 08월 27일 (출처: Mysteel)	WEEKLY: China's BF capacity use stable at 85.3% -중국 247개 제철소 고로 활용도는 전주보다 0.17% 하락한 85.3%를 기록하며 큰 움직임 없었음. 중국 철강 시장은 여전히 베풀어 한 분위기이고 중국 중앙 그리고 북동부 지역이 추가로 감산 행렬에 동참하며 5개의 고로가 가동 중단에 들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0.65% 상승한 74.22%를 기록했는데 소규모 제철소들이 보수를 마치고 다시 가동에 들어간 영향.
21년 08월 27일 (출처: Mysteel)	Nippon Steel, Toyota agree \$182/t steel price hike -일본 최대 철강기업인 신일본제철이 토요타와의 철강 가격 협상에서 20,000엔 인상함.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임. 원래 신일본제철은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인상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임. 토요타그룹의 가격 정책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들에 납품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부터 가격 인상을 적용. -반기 20,000엔 인상은 역대 최대 인상폭임. 한편 신일본제철은 이미 가전향 철강 가격을 30,000~50,000엔 인상한 바 있음.
21년 08월 27일 (출처: Mysteel)	WEEKLY: China iron ore port stocks reach a 3-month high -중국 45개 항구 철광석 재고는 전주에 비해 1% 증가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재경신함. 출하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동남부 지역의 선박 적체 현상이 해결되며 도착 물량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 -대기하고 있는 선박의 수는 182척으로 전주보다 3척 줄음. 여전히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8월 둘째주의 199척보다는 크게 줄음.
21년 08월 26일 (출처: Mysteel)	Dip in China's retail steel stocks continues -중국 5대 철강재 유통 재고는 전주에 비해 0.4% 감소하며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열연 재고가 2% 넘게 감소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던 반면 선재의 재고는 증가함. -중국 정부의 철강 생산량 억제 정책에 중국 내 제철소 철강 생산량은 전주에 비해 0.3% 감소함.
21년 08월 25일 (출처: Mysteel)	CISA: Members' mid-Aug daily steel output recovers 4.6% -8월 중순 중국철강협회 소속 밀들의 조강생산량은 8월 초순 대비 4.6% 증가. 다만 철강 가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높은 생산량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확실치 않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진은 확대됨. -조사 대상을 전기로까지 확대하면 8월 중순 조강 생산량은 초순 대비 1.3% 감소. 전력 수요 성수기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
21년 08월 25일 (출처: Mysteel)	INFOGRAPH: China's met coke price touches 15-year high -8월 24일 중국 코크스 가격은 3,176.7위안/톤을 기록하며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7월말부터 코크스공장 과 제철소 사이에서 7번 연속의 코크스 가격 인상이 이뤄진 영향. -중국 247개 제철소 코크스 재고는 5주 연속 하락하여 조사를 시작한 18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코크스 가격이 상승했지만 원료탄 가격 또한 강세를 보이며 코크스 생산 마진은 오히려 축소. 모든 철강 원재료 중 코크스만 유일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21년 08월 25일 (출처: mining.com)	Iron ore price up amid signs of resilient demand in China -중국이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한 점 그리고 7월 경제지표 부진 이후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신용을 확대하고 실물 경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에 힘입어 철광석 가격 상승. -다만 CRU에서는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연말로 갈수록 축소될 것이고 호주, 브라질 등에서의 공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 보통 4분기에 철광석 선적량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음.
21년 08월 25일 (출처: Mysteel)	Low profits, slow shipment dampen China billet imports -중국과 해외 빌렛 가격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있으며 해상 운송에 있어서도 지연이 지속되며 중국 빌렛 수입량이 급감함. 중국 구매 측은 660\$ 이하의 빌렛을 원하고 있는데 베트남산은 665\$, 인도네시아산은 67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중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강화하면서 운송이 지연되는 것도 빌렛의 수입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 보통 베트남에서 선적을 하면 세관 통과까지 6~7일 정도 걸리는데 최근에는 그 기간이 14일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임.
21년 08월 23일 (출처: Mysteel)	Shagang cuts long steel prices further for late-Aug sales -중국 최대 민영 철강사인 사강강철이 8월 하순 철근, 선재 그리고 bar-in-coil 판매 가격을 150위안 인하. 수요는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철근 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판매 가격의 인하는 어느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음. -수요측은 최근 급락한 원재료 가격에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9월이 되어서야 완벽한 수요의 회복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음.

비철 뉴스

21년 08월 26일 (출처: mining.com)	Labor tensions are ratcheting up again in Chile -칠레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구리 공급 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번주에만 JX Nippon Mining과 Codelco사 Andina 광산 노동자들이 임금 제안을 거절했으며 Corro Colorado광산, Salvador광산에서는 노조가 임금 협상 거부를 제안. 4개 광산은 세계 구리 생산량의 2.2%를 차지. Codelco는 이러한 상황에도 올해 생산량은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언급. -Cerro Colorado와 Salvador는 아직 파업을 막을 시간이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구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광산을 지킨 것에 보상을 바라고 있음. 이달 초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Escondida광산 노조가 큰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식도 파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1년 08월 25일 (출처: mining.com)	Copper price rises as Chinese buyers come back to the market -중국이 코로나 재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으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어 구리 가격은 4일 연속 상승했음. 저번주 구리 가격의 하락이 수요측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도록 했으며 동시에 구리 스크랩 공급의 축소도 이끌음. -S&P Global에 따르면 칠레 공급 차질 이슈, 중국 외 지역에서의 수요 회복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이 구리 가격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구리가격이 3분기에는 \$9,326 4분기에는 \$8,919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국내외 경제이슈

Economist 채현기

02-6923-7348

hkchae@capefn.com

연구원 황준호

02-6923-7357

junhohwang94

@capefn.com

미 증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에도 조기 금리인상 일축에 동반 강세

미국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이나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발언 - 7월 이후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연준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 그러나 자산매입 감소 시기와 별개로 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 이르다며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 -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임금 상승의 증거 및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의 부재, 일부 품목의 높은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의 급등세는 일시적이라는 의견을 유지. 그러나 급등이 지속된다면 연준은 물가압력을 낮추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고용시장에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테이퍼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언 - 또한,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연준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는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이를 낮추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 - 월러 연준 이사, 한 번 더 강한 고용보고서가 나올 경우 올해 가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이를 시작할 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고용시장이 테이퍼링 기준에 근접할 만큼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 - 현 미국 경제가 물가는 물론 고용 관련 기준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며 고용이 강하다면 10월에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주장. 또한 지금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이와 같은 현상이 저임금 소득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 -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 전에 종료하기 위해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올해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이 갖춰졌다고 주장하며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한 후 2021년 안에 이를 시작해 내년 중반까지 완료되는 것을 원한다고 발언 7월 PCE 가격지수, 예상치(4.1%)를 상회하며 전년대비 상승(4.0%→4.2%, yoy) - 7월 Core PCE 가격지수는 예상치(3.6%)에 부합하며 전년대비 상승(3.6%→3.6%, yoy) - 7월 개인소비는 예상치(0.3%)를 상회하며 전월대비 증가(0.2%→1.1%, mom). 7월 개인소득은 예상치(0.4%)를 하회했으나 전월대비 증가(0.2%→0.3%, mom)
주간 환율	달러인덱스(DXY)는 전주대비 0.81pt(0.87%) 하락한 92.69pt 를 기록 -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 테러 및 연내 테이퍼링 우려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이며 긴축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힘입어 달러화의 강세 압력이 완화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10.40 원(0.88%) 하락한 1,169.2 원에 마감 -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카불 공항 폭탄 테러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 및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 축소로 하락 흐름 시현
주간 원자재	금 가격(9 월물)은 전주대비 2.05% 상승한 온스당 1,817.57 달러로 마감 - 카불 공항 폭탄 테러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1,800달러대를 재돌파 WTI 유 가격(9 월물)은 전주대비 10.30% 상승한 배럴당 68.74 달러로 마감 - 아프가니스탄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우려 완화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가능성 및 멕시코만 화재 여파에 따른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주대비 상승

Appendix

글로벌 증시와 원자재						
종목	현재	1D(%)	1W(%)	1M(%)	1Y(%)	5Y(%)
코스피	3,133.90 (pt)	0.17	1.41	-2.14	33.14	53.64
코스닥	1,023.51 (pt)	0.30	3.05	-0.74	21.66	53.31
다우존스	35,455.80 (pt)	0.69	0.34	1.49	23.74	92.13
S&P500	4,509.37 (pt)	0.88	0.67	2.60	28.54	107.22
나스닥	15,129.50 (pt)	1.23	1.25	3.11	29.36	189.67
유로스톡스 50	4,190.98 (pt)	0.51	0.35	2.49	26.40	38.28
상해종합	3,522.16 (pt)	0.59	1.29	3.67	3.48	14.55
니케이 225	27,641.14 (pt)	-0.36	0.53	1.31	20.80	65.26
MSCI AC World	737.24 (pt)	0.72	0.93	1.80	25.71	76.47
CRB 원자재	561.17 (pt)	0.15	0.29	-0.18	42.76	3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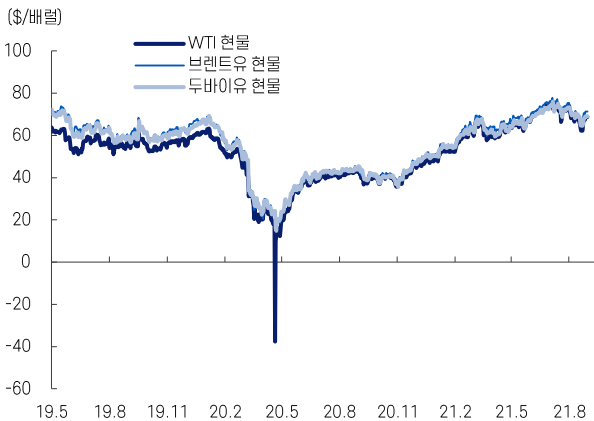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제 원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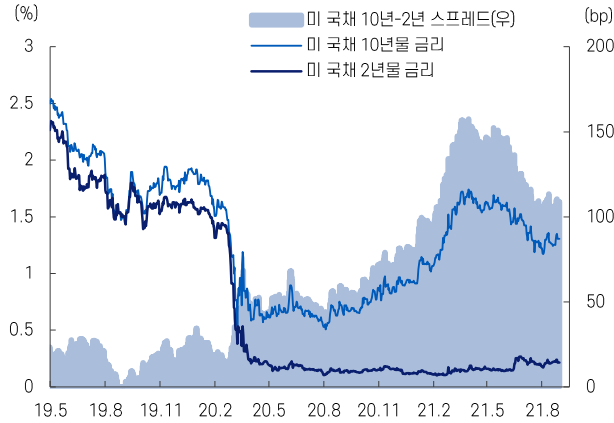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금리 및 환율						
종목	현재	1D(bp/%)	1W(bp/%)	1M(bp/%)	1Y(bp/%)	5Y(bp/%)
국고채 3년	1.41 (%)	1.00	0.80	-1.00	51.30	11.30
국고채 10년	1.94 (%)	0.70	4.20	7.00	45.20	47.20
미 국채 2년	0.22 (%)	-2.55	-0.91	3.12	8.81	-58.23
미 국채 10년	1.31 (%)	-4.21	5.54	8.48	58.59	-25.93
중국 시보(7월)	2.34 (%)	0.00	17.00	6.00	8.00	-6.00
달러 인덱스	92.69 (pt)	-0.40	-0.29	0.56	0.34	-3.51
원/달러	1,169.20 (₩)	-0.11	-0.38	1.64	-1.28	4.40
달러/유로	1.18 (달러)	0.01	0.43	-0.62	-0.90	5.86
엔/달러	109.86 (엔)	0.02	0.15	0.13	4.26	6.70
위안/달러	6.47 (위안)	-0.15	-0.15	0.16	-5.73	-3.12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금과 은 가격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APE Macro Weekly (08.30~09.03)



Economist 채현기 | 02-6923-7348 | hkchae@capefn.com

시황/ETF 나정환 CFA | 02-6923-7349 | jeongna@capefn.com

RA 황준호 | 02-6923-7357 | junhohwang94@capefn.com

RA 정태현 | 02-6923-7356 | jth1004@capefn.com

금리 인상, 아직 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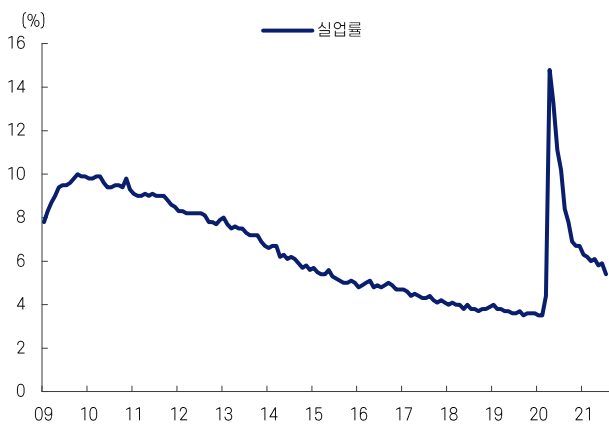
국내증시 Preview (08.30 ~ 09.03)

KOSPI 주간 레인지: 3,050pt~3,190pt

이슈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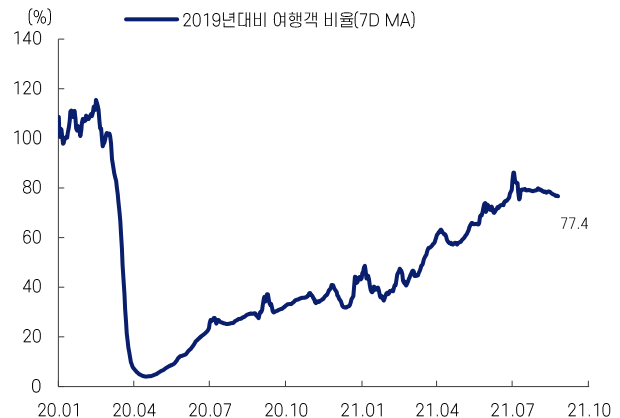
- **파월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 지난 27일(금) 파월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연내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음에도 미 증시는 상승 마감함. 통화정책과 관련된 파월의 발언은 대부분 7월 미 FOMC 의사록에 언급된 내용이었지만, 금리 인상에 발연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 충분했기 때문. 파월은 테이퍼링의 시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후 미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인 3.5%에 도달하고, 물가상승률이 꾸준히 2%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7월 미국 실업률은 5.4%이고, 고용지표가 아무리 빠르게 개선되더라도 2022년에 완전고용 수준인 3.5%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려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4%였던 미 실업률이 3.5%에 도달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4년 5개월이었음(미 실업률: 2015년 4월(5.4%) → 2019년 9월(3.5%)). 즉, 금리 인상 시점을 2022년 이후로 미루는 비둘기파적 발언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테이퍼링 시행 자체가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이 아님을 감안하면, 연내 테이퍼링 시행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하방 압력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함.
- **리오프닝**. 미국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대면 경제는 활성화되고 있음. 미 일간 확진자수(7일 평균)가 15만명을 넘어서면서 올해초에 기록한 최고수준인 25만명대에 근접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으로 미 TSA에서 발표하는 공항이용객 수는 2019년의 77% 수준까지 회복함. 미국 내 2차 접종을 마친 백신 접종자 비율이 52%를 넘어서에 따라 대면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이 외에도 OpenTable의 글로벌 식당 이용객자 비율도 거의 2019년 수준에 도달하였고, 완전 백신 접종비율이 60%가 넘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에서는 식당 이용객 수가 2019년보다 높음. 확진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면서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아직 완전 백신 접종률이 27%로 낮기 때문에 대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부분적 리오프닝이 시작될 것.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리오프닝(항공, 여행, 레저) 업종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함.
- **투자전략**.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요인인 연내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높아짐. 9/3에 발표되는 8월 비농업 취업자수가 예상치인 72.8만명 수준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9월 미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 높음.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증시에 반영되었고, 9월 테이퍼링 발표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 증시에 긍정적임. 차주 증시는 파월의 금리 인상 시기가 멀었다는 발언과 8월 수출 호조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나, 단기간에 120일선 저항선인 3,185pt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국 실업률 추이



자료: WiseFn,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9년 대비 TSA 여행객 비중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KOSPI는 전주대비 +2.40% 상승한 3,133.90pt를 기록함. KOSDAQ은 전주대비 +5.75% 상승한 1,023.51pt를 기록함. 이번주 KOSPI는 금융통화위원회 및 잭스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 심리로 인해 변동성이 다소 제한되었지만, 기관들을 중심으로 지난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함. 그러나 8월 금융위에서의 금리 인상, 잭스홀 미팅을 앞두고 FOMC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및 주 후반에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의 폭탄 테러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점이 상승폭을 다소 제한함.
- 이번주 KOSPI는 기관이 1조 5,137억원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608억원, 5,804억원 순매도를 기록함. KOSPI 업종별로는 은행(-5.83%), 화학(-0.37%)을 제외한 운수창고업(+8.48%), 증권(+7.74%), 섬유유복(+7.33%), 건설업(+7.21%) 등 모든 업종에서 약세.

Index	주간 수익률 (%)	YTD 수익률(우) (%)
KOSPI 200	6.8	18.5
KOSPI 소형	6.6	20.5
KOSDAQ	5.7	10.5
KOSDAQ 150	5.5	4.5
KOSPI 500	3.1	7.5
KOSPI	2.4	8.5
KOSPI 200	2.3	5.5
KOSPI 500	2.1	5.0
KOSPI 대형	2.0	5.5

[illegible][illegible]

Bar chart showing the ratio of interest expense to interest income by business type. The Y-axis represents the ratio in percentage, ranging from -80% to 60%. The X-axis lists various business types. The legend indicates that dark blue bars represent the '이익조정비용' (Interest Adjustment Cost).

업종	이익조정비용 (%)
에너지	48
금업	48
수출	32
IT	30
항공	18
주거서비스	18
배달서비스	15
제조업	10
이커머스	2
배달서비스	-25
서비스	-58

Figure 1: Trend of the '2020 Korea Economic Barometer' (Unit: 100 won)

Month	개인 (Individual)	기관 (Institution)	외국인 (Foreigner)
21.1	0	0	0
21.2	25	-15	-5
21.3	35	-25	-5
21.4	45	-35	-5
21.5	55	-45	-5
21.6	60	-45	-10
21.7	65	-45	-10
21.8	80	-50	-10

자료: Quantwise,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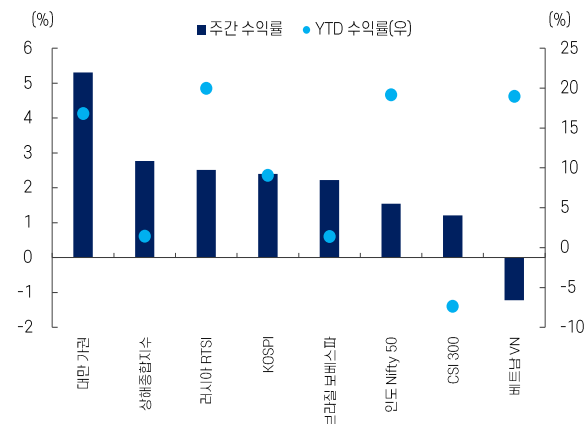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증시 Review & Preview (08.23 ~ 09.03)

차주 발표될 경제지표 부진이 예상되나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추가부양책이 기대되면서 강보합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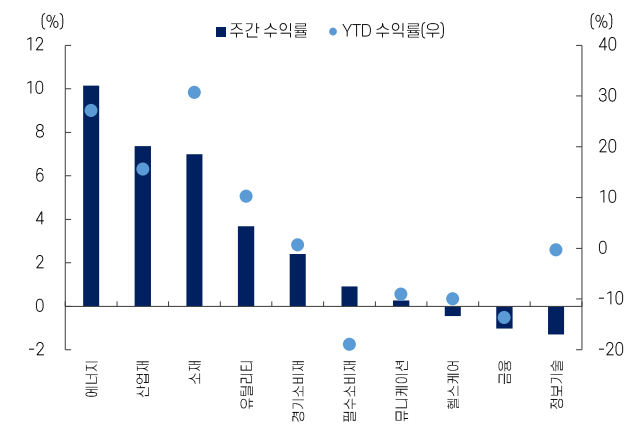
- **증시 리뷰 및 이슈:** 상해종합지수는 전주대비 +2.77% 상승한 3,522.157pt를 기록함. 홍콩 항셱 지수는 전주대비 +2.10% 상승한 25,370.64p를 기록함. Nikkei 225 지수는 전주대비 +2.32% 상승한 27,641.14pt를 기록함. 이번주 신흥국 증시는 미국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변동성이 다소 제한된 가운데, 미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을 했다는 소식에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정상화 가속 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전주대비 반등에 성공함.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 정책 수단을 활용해 농촌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에 지준을 인하 가능성이 부각된 점이 상승세를 지지함. 그러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조기 테이퍼링을 암시하는 매파적 발언 및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의 폭탄 테러 사건으로 투자 심리 악화되면서 상승폭을 다소 제한함.
- **업종:** 금주에는 에너지(+8.5%), 소재(+5.2%), 산업재(+3.9%) 등의 업종들이 전주대비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6.5%), 필수소비재(-3.7%), 금융(-2.3%) 등의 업종들이 전주대비 하락함.
- **전망:** 차주 발표될 PMI 지표가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제지표 부진이 추가 부양책의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증시에 작용하는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추가 부양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 배터리 등 관련 제조업 부문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주 중국 증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잭슨홀 미팅이 테이퍼링을 시사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온건하게 마무리된 것도 이러한 상승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됨.

신흥국가별 지수 주간수익률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 상해종합지수 업종별 주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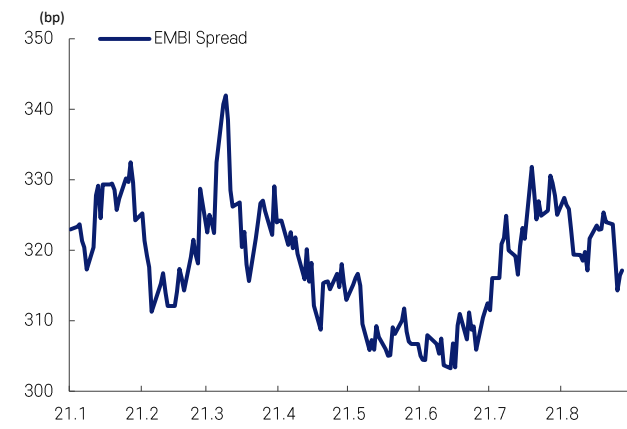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일본 제외) 및 한국 12M Fwd PER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MBI 스프레드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8월 고용 호조는 연내 테이퍼링 시행을 지지할 전망

글로벌 및 국내 경제 Review & Preview (08.23 ~ 0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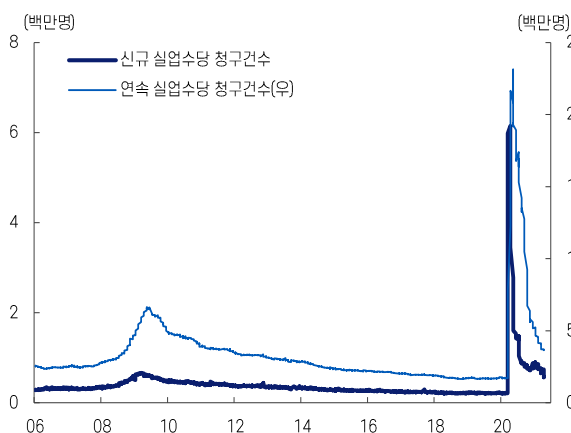
파월 연준의장은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판단

- **지난 27일 파월 연준의장은 잭슨홀 연설을 통해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한 발전을 보인다면, 연내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연내 테이퍼링이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이미 7월 FOMC회의를 통해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이 연내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테이퍼링 시행 시점 및 방식을 별도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내 테이퍼링 시행이 연준의 기본적인 통화정책 방향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함. 결국, 최근 델타 변이 확산이 단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을 포함한 향후 경제지표 흐름을 신중하게 평가하면서 테이퍼링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주말 미국 증시는 S&P500지수와 NASDAQ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로 마감하는 한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1%까지 하락 마감함.** 이는 파월 연준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시기와 속도가 금리인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금리인상 시점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금융시장 내 안도감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함.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2% 목표치 근방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점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됨.
- **결국 차주에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9월 FOMC회의에서의 테이퍼링 계획 발표 및 향후 시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파월 연준의장도 잭슨홀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델타 변이 확산이 경제지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실제 8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전월(94.3만명) 대비 둔화된 75만명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음.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이 80만명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는 9월 FOMC회의에서의 테이퍼링 계획 발표를 지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8월 고용지표에서 정부의 실업급여 관련 지원 프로그램 조기 종료 등으로 구인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구직 의지가 둔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다만 최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5만건 이하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전망함.
- **8월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부합, 혹은 그 이상의 호조를 나타낼 경우 9월 FOMC회의(21~22일)에서 연준은 테이퍼링 시점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음.** 과거 2013~14년에 테이퍼링 국면이 10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12월부터 최소 120억,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이 축소되면서 2022년 하반기 중 종료될 가능성이 높음 일부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의견대로 내년 상반기 내 종료하는 일정이라면 월간 200억 달러 규모의 축소가 필요한 셈인데, 9월 FOMC회의에서 점도표의 변화(2022년 금리인상 가능성)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함.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부진한 한편, 지역별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연준이 경기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임.
- **실제로 9월 1일 발표되는 8월 ISM제조업지수와 동월 Markit 제조업 PMI지수는 모두 전월대비 둔화되는 흐름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물론 확장국면을 지속하는 한편, 레벨상으로도 60선 전후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테이퍼링 과정을 가속화할 만큼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지 않다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잭슨홀 연설을 통해 파월 연준의장이 테이퍼링 텐트럼을 야기시키지 않고,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은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긍정적이나, 8월 고용지표와 9월 FOMC회의를 앞둔 경계심리가 금융시장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판단임.

이번주 FOMC 구성 위원들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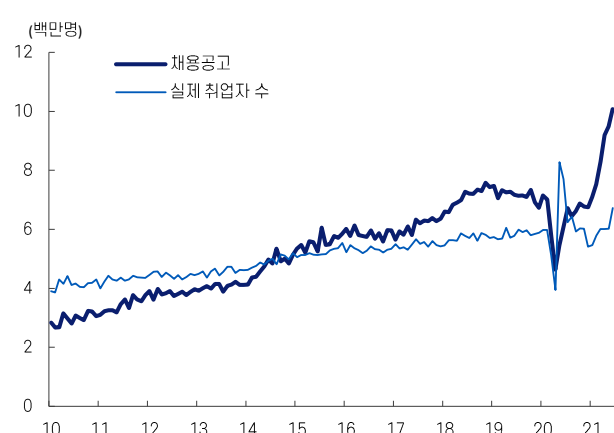
이름	직위	성향	발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매파	연준의 채권 매입이 금융시장의 버블을 조장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말까지 테이퍼링을 마무리해야 한다. (21.08.26)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매파	9월 테이퍼링 발표 및 10월 테이퍼링 시작을 원하며, 8개월에 걸친 점진적인 테이퍼링 후 2022년에 첫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21.08.26)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매파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고용 진전 및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가까운 시일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 (21.08.26)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비둘기파	7월 이후 경제가 광범위하게 진전된다면 연준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아직 금리 인상을 논할 시기는 아니다. (21.08.27)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비둘기파	고용에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테이퍼링을 지지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이를 낮추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1.08.27)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비둘기파	한 번 더 강한 고용보고서가 나올 경우 올해 가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21.08.27)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매파	테이퍼링을 금리 인상 전에 종료하기 위해 빠르게 시작해야 하며, 올해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21.08.27)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현 미국 고용시장은 테이퍼링 기준에 근접할 만큼 회복되었으며, 고용이 계속 진전한다면 10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현 인플레이션 급등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21.08.27)
로레타 매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매파	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은 갖춰졌으며, 9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한 후 2021년 안에 이를 시작해 내년 중반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1.08.27)

주간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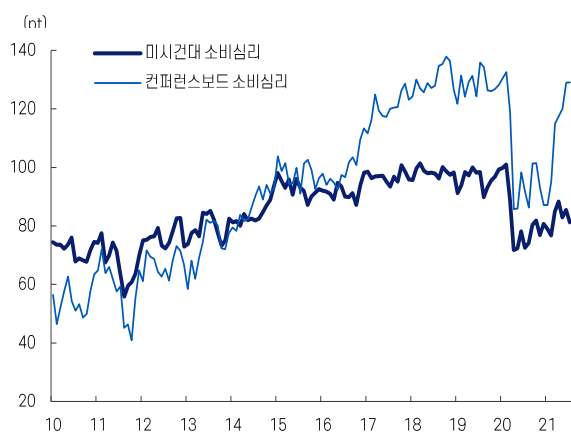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 기업들의 채용 공고 및 실제 취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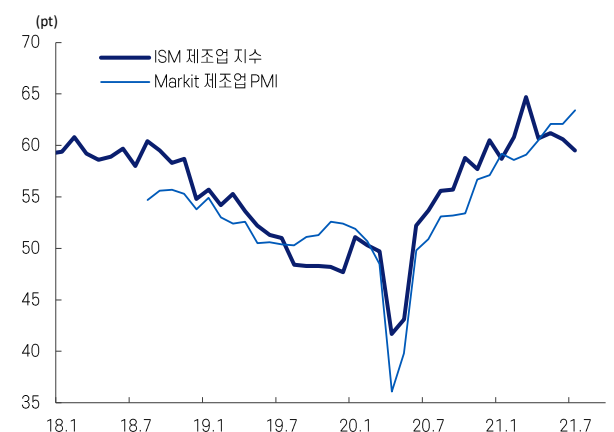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CB/미시간대 소비심리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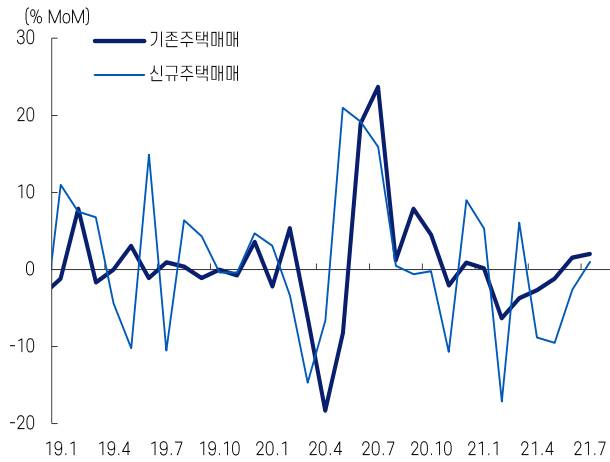
미국 ISM 및 Markit 제조업 지수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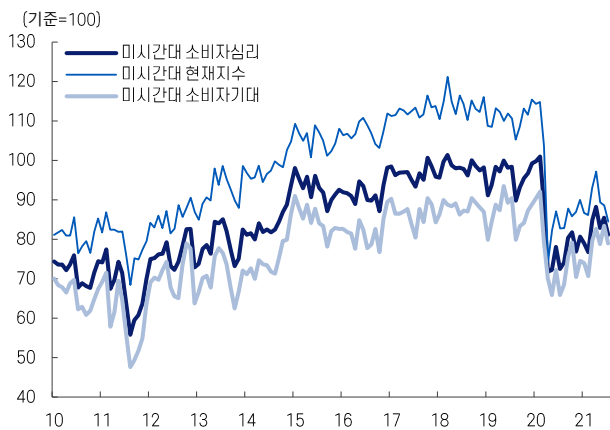
미국 7월 기존주택판매 (발표일: 21.08.23)



- 발표치/예상치/이전치 (% MoM): 2.0/-0.5/1.6
- 호수 기준으로는 예상치(58.3만호)를 상회하며 전월대비 증가 (58.7만호→59.9만호)한 가운데, 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7월 기존주택 중간판매 가격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35.99만 달러
- 한편 7월 신규주택판매는 예상치(3.1%)를 하회했으나 전월대비 증가(-2.6%→1.0%, mom). 이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수치이며 호수 기준으로는 예상치(69.7만호)를 상회하며 전월대비 증가함(70.1만호→70.8만호).
-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임대료를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몇 개월간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으나, 점차 재고가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은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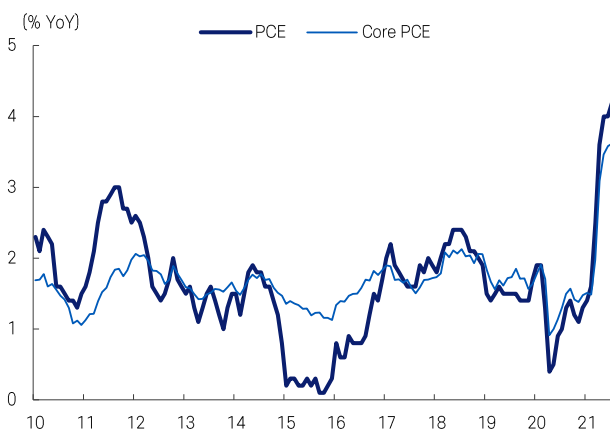
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발표일: 21.08.27)



- 발표치/예상치/이전치 (pt): 70.3/70.8/70.2
- 8월 소비자대기지수는 전월대비 하락(79.0→65.1). 8월 현재여건 지수는 전월대비 하락(84.5→78.5). 향후 12개월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전월대비 하락(4.7%→4.6%)
- 미시간대에 따르면, 8월 소비심리는 전월대비 13.4% 하락하며 10여년 중에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기록함. 이는 소비자들이 델타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급등, 임금 상승률 및 실업을 하락세 둔화 등에 감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백신 접종의 확대로 팬데믹이 종식되고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PCE 디플레이터 (발표일: 21.08.27)



- 발표치/예상치/이전치 (% YoY): 4.2%/4.1%/4.0%
-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예상치(0.4%)에 부합했으나 상승폭은 축소 (0.5%→0.4%, mom). 8월 Core PCE는 예상치(3.6%)에 부합하며 전월대비 상승폭 유지(3.6%→3.6%, yoy).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예상치(0.3%)에 부합했으나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0.5%→0.3%, mom).
- 8월 Core PCE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3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경신했으나,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둔화됨.
- 이러한 수치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발언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잭슨홀 미팅에서의 테이퍼링 시사 발언에 영향.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간 경제지표 발표일정 (현지시간 기준)

	지표	단위	예상치*	발표치	이전치
23일(월)	미국, 8월 Markit 제조업 PMI (잠정)	pt	62.0	61.2	63.4
	미국, 8월 Markit 서비스업 PMI (잠정)	pt	59.2	55.2	59.9
	미국, 7월 기존주택매매	만 호/% MoM	58.3/-0.5	59.9/2.0	58.7/1.6
	유로존, 8월 Markit 제조업 PMI (잠정)	pt	62.0	61.5	62.6
	유로존, 8월 Markit 서비스업 PMI (잠정)	pt	59.5	59.7	60.4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지수 (예비)	pt	-4.9	-5.3	-4.4
24일(화)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만 호/% MoM	69.7/3.1	70.8/1.0	70.1/-2.6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pt	-	102.5	103.2
25일(수)	미국, 7월 내구재주문 (잠정)	% MoM	-0.3	-0.1	0.8
26일(목)	미국, 2Q GDP	% QoQ SAAR	6.7	6.6	6.4
	미국, 2Q 개인소비	% QoQ SAAR	12.2	11.9	11.4
	미국, 8월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지수	pt	25	29	30
	유로존, 7월 M3 통화공급	% YoY	7.6	7.6	8.3
	한국, 8월 금융통화위원회	%	0.50	0.75	0.50
27일(금)	미국, 8월 팩스홀 미팅				
	미국, 7월 개인소득/소비	% MoM/% MoM	0.3/0.4	1.1/0.3	0.2/1.1
	미국, 7월 PCE 디플레이터	% YoY/% MoM	4.1/0.4	4.2/0.4	4.0/0.5
	미국, 7월 Core PCE 디플레이터	% YoY/% MoM	3.6/0.3	3.6/0.3	3.6/0.5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 (확정)	pt	70.8	70.3	70.2
	중국, 7월 산업생산	% YoY	-	16.4	20.0
30일(월)	미국, 7월 미결주택매매	% MoM/% YoY	0.4/-8.5	-/-	-1.9/-3.3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	pt	-	-	-4.4
	일본, 7월 소매판매	% MoM/% YoY	0.4/2.1	-/-	0.1/3.1
31일(화)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 MoM	1.9	-	1.7
	미국, 6월 CS 주택가격지수	% MoM	1.80	-	1.81
	미국, 8월 CB 소비자신뢰지수	pt	123.0	-	129.1
	유로존, 8월 CPI	% YoY/% MoM	2.7/0.2	-/-	2.2/-0.1
	중국, 8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pt/pt	50.1/52.0	-/-	50.4/53.3
	일본, 7월 실업률	%	2.9	-	2.9
	한국, 7월 산업생산	% MoM/% YoY	0.0/7.3	-	2.2/11.9
9/1일(수)	미국, 8월 ADP 민간고용	만 명	63.8	-	33.0
	미국, 8월 Markit 제조업 PMI (확정)	pt	61.2	-	63.4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pt	58.5	-	59.5
	유로존, 8월 Markit 제조업 PMI (확정)	pt	61.5	-	62.8
	유로존, 7월 실업률	%	7.6	-	7.7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pt	50.1	-	50.3
	한국, 8월 수출입	% YoY/% YoY	34.2/44.8	-/-	29.6/38.1
2일(목)	미국, 7월 무역수지	10억 달러	-71.0	-	-75.7
	미국, 7월 제조업수주	% MoM	0.3	-	1.5
	미국, 7월 내구재주문 (확정)	% MoM	-0.1	-	0.9
	유로존, 7월 PPI	% YoY/% MoM	-/-	-/-	10.2/1.4
	한국, 2Q GDP (확정)	% QoQ/% YoY	0.7/5.9	-	1.7/1.9
3일(금)	미국, 8월 비농업부문 고용	만 명	75.0	-	94.3
	미국, 8월 실업률/광의의 실업률	%/%	5.2/-	-/-	5.4/9.2
	미국, 8월 시간당 평균임금	% YoY/% MoM	4.0/0.3	-/-	4.0/0.4
	미국, 8월 Markit 서비스업 PMI (확정)	pt	55.2	-	59.9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pt	62.0	-	64.1
	유로존, 8월 Markit 서비스업 PMI (확정)	Pt	59.7	-	59.8
	유로존, 7월 소매판매	% MoM/% YoY	0.0/4.5	-/-	1.5/5.0
	한국, 8월 외환보유고	10억 달러	-	-	45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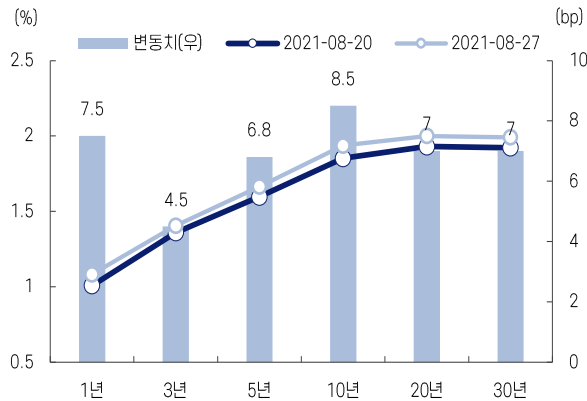
■ 발표 예정

*예정치는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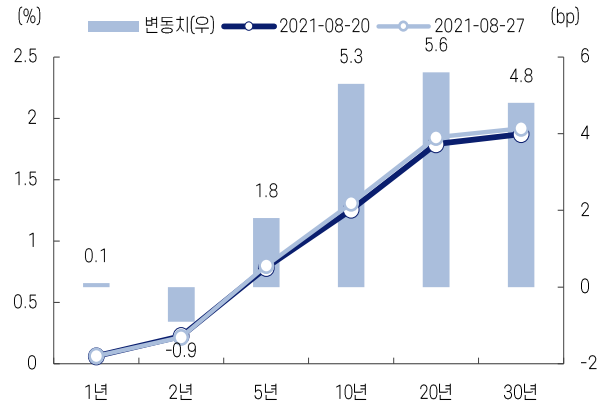
Fixed Income

- 이번주 국채 3년물 금리는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순상환에도 불구하고, 주 초반 청와대 정책실장의 통화정책 정상화 발언,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 외국인들의 국고채 선물 매도에 힘입어 전주대비 상승 마감함.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선반영 되었다는 시각 속에 일부 저가매수 목적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음.
- 차주 국채 3년물 금리는 미 연준의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 시사된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고채 선물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약세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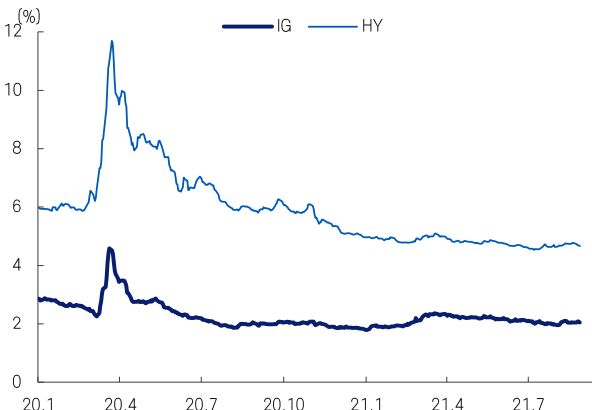
국고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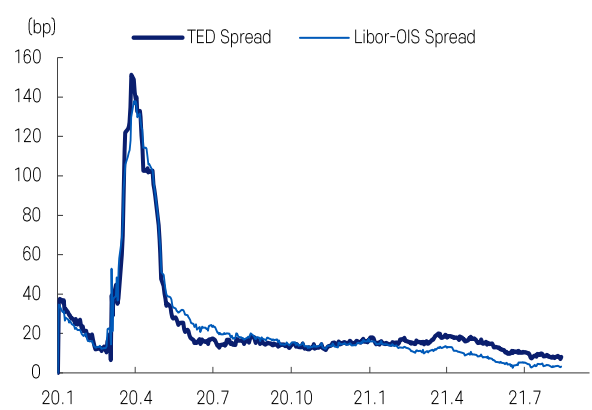
미국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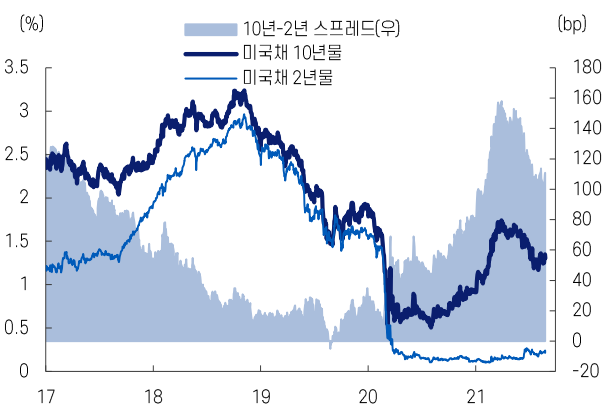
미국 IG/HY 등급 회사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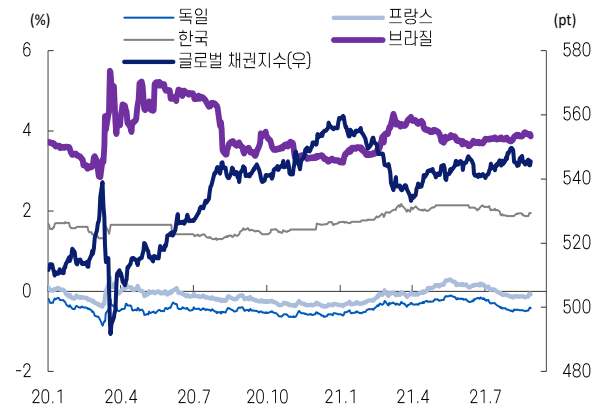
TED 스프레드 및 Libor-OIS 스프레드 추이



미국채 기간 스프레드 추이



주요국 10년물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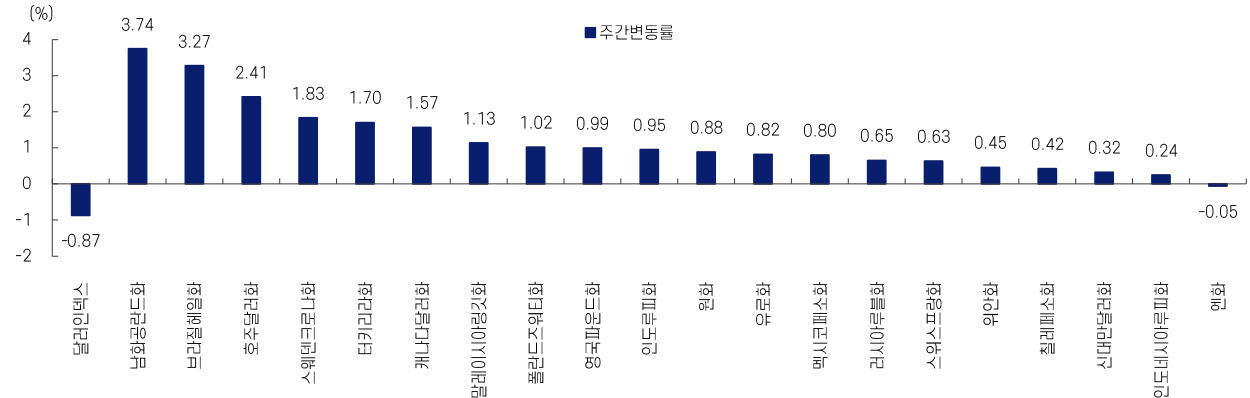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urrency

- 달러인덱스는 92.69 ~ 93.50pt 범위 내 등락하며 전주대비 하락 마감함. 카불 공항 폭탄 테러 및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주 후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 반전함.
- 원/달러 환율은 1,165.6 ~ 1,179.6원 범위 내 등락하며 전주대비 하락 마감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에서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카불 공항 폭탄 테러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주요국 통화 달러 대비 절상/절하율



달러지수 및 EM 무역가중 달러지수 추이



원/달러 및 위안/달러 환율 추이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추이



파운드/달러 및 스위스 프랑/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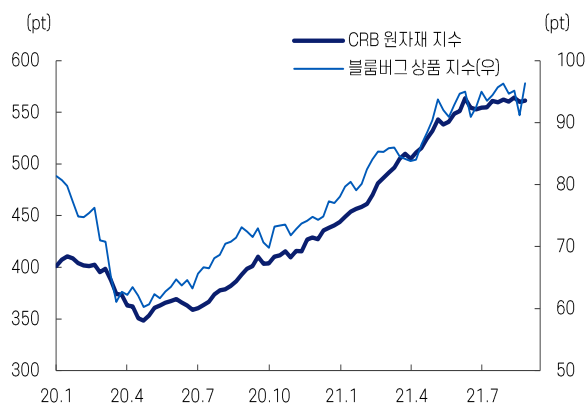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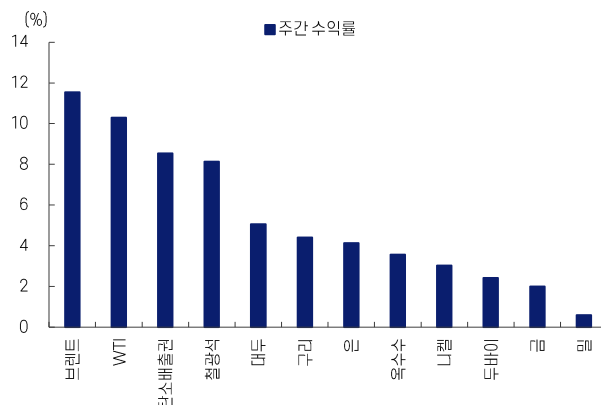
Commodity

- 금가격은 전주대비 +2.0% 상승함.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겠다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달러화 약세 흐름이 시현되며 금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WTI유 가격은 전주대비 +10.3% 상승함. 중국이 코로나 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는 소식이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멕시코만 지역의 허리케인 경보에 따른 원유 시추 시설 운영 중단 가능성으로 석유 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되며 상승 마감.

CRB 및 Bloomberg 상품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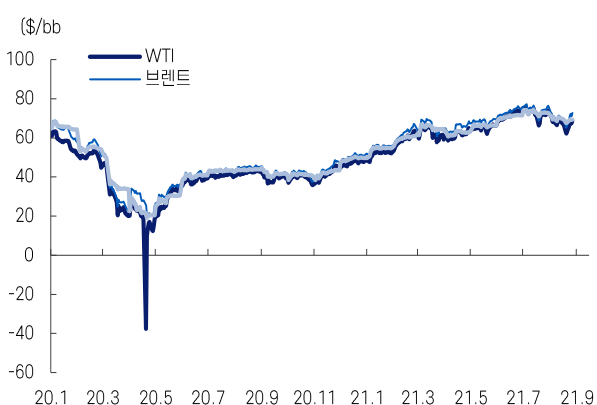
주요 상품별 주간수익률



철광석 및 구리 가격 추이



주요 원유 가격 추이



주요 귀금속 가격 추이



주요 곡물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Bloomberg,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